

이덕일의 '역사의 창'



역사와 정치는 한 몸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의 특징은 저명한 독립운동가들 대다수가 역사학자였다는 사실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2대 대통령 백암 박은식 선생은 '한국통사' '대동민족사' '한국독립운동지혈사' 등을 쓴 역사학자였다. 백암은 우리뿐만 아니라 동이쪽 전체를 아우르는 큰 역사가관을 갖고 있었다. 그는 조선을 남국, 만주족의 청(淸)을 북국으로 지칭하면서 조선의 멸망(1910)과 청의 멸망(1911)을 일컬어 "우리 역사에서 남국과 북국이 동시에 망한 것은 처음"이라고 갈파했다. 백암의 뒤를 이어 초대 국무령이 된 석주 이상룡도 역사학자다. 그의 선조는 '환단고기'의 '단군세기'를 썼다는 고려말의 수문하시중 행촌(杏村) 이암(李崑)이었다. 석주는 만주 망명일기인 '서사록' (西征錄)에서 만주를 우리 민족사의 무대로 인식하고 중국 한(漢)나라가 고조선의 멸망시키고 설치했다는 한사군은 한반도에 있지 않았다고 서술했다.

해방 후 우리나라가 프랑스 같은 정상적 정치 행로를 걸었다면 백암, 석주, 단재 신재호 등의 역사가관이 현재 우리 국민들의 상식적인 역사가관이 되었을 것이다. 초중고교와 대학에서도 한 손에는 총을 들고 '영토 전쟁'을 치르고, 다른 손에는 붓을 들고 '역사 전쟁'을 치렀던 순국선열들의 역사가관을 배울 것이다. 그러나 해방 후 친일 세력들이 다시 정권을 잡아 독립운동가들을 정산한 것처럼 단재가 여순감옥에서 '조선상고사'를 집필할 때 조선총독 직속의 조선사편수회에서 일본인 식

민사학자들의 지시를 받아 자국사를 난도질한 이병도·신석호가 역사학계를 완전히 장악했다. 이들은 보수·진보의 구분도 없이 남한의 역사학계 전체를 조선총독부 역사관 추종 세력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김영삼·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은 평생을 반독재 민주화 투쟁으로 일관했기에 식민사학자들에게 둘러싸인 상황에서도 역사의 시비를 잘 알고 있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5년 8월 15일 광복 50주년을 맞아서 조선총독부 청사를 해체시켰다. 이를 보존해야 한다는 숭한 반대 논리를 배격한 것은 뚜렷한 역사관을 가졌기 때문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역사학자 못지 않은 해박한 역사 지식을 갖고 있었고, 평소 홍익인간 사상을 크게 중시했다. 그 서재에 필자 등의 저서 '고조선은 대륙의 지배자였다'에서 제시한 '고조선강역지도'를 붙여 놓고 있었을 정도로 독립운동가들의 역사관에 동조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민주당 의원들은 교육기본법에서 '홍익인간'을 삭제하려고 하다가 역사운동가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철회했다. 문재인 정권은 가야사를 복원한답시고 가야사를 인나사로 둔갑시켜 경남 합천과 전북 남원을 각각 아마다오의 식민지 다라국과 기문국으로 유네스코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신청했다가 거센 항의를 받고 주춤한 상태다. 여기에 민주당 의원들은 전국을 8대 역사문화권으로 나누는 '역사문화권정비특별법'을 통과시켜 현재 시행 중인데, 공정한 한 번 열지

않은 이 법은 두고두고 발목을 잡을 것이다. '삼국사기'는 서기 9년에 마한이 백제에 멸망했다고 말한다. 그런데 식민사학자들은 일본 극우파들의 성서인 '일본서기'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369년 야마토왜가 가야를 점령해 인나(일본부)를 세운 후 내친 김에 전라도를 점령해 백제에게 하사할 때까지 호남은 마한이 차지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런 식민사학의 역사 왜곡을 법제화했다. (3월 31일자 '8대 역사문화권 유감' 참조) 그러면서 민주화의 성지인 광주에 마한역사문화센터를 짓겠다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그 추은 겨울날 전국 각지에서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마음은 적폐 청산에 있었다. 그런데 집권 후 식민사학 적폐 청산은커녕 식민사학자들과 한 몸이 되어 역질주하다가 정권까지 빼앗겼다. 현재 민주당의 위기는 '김건희 특검법' 같은 대증요법이나 국민의 힘의 첫발질에 의한 반사이익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수였다면 홍익인간을 지우고, 가야사를 인나사로 둔갑시키고, 광주에 마한역사문화센터를 짓겠다는 발상이 가능했을 것인가를 자문해 보면 답은 자명하다. 답은 이미 나와 있다. 다만 정답을 찾으려는 노력은 도외시한 채 오답을 정답이라고 뽐니를 부리고 있으니 과거를 짚아먹는 오늘과 그 미래가 우려될 뿐이다.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초빙교수>

* 이 칼럼은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의료칼럼

합병증 무서운 '환절기 고혈압'



최원호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순환기내과 전문의

병률은 27.2%로 전국민 네 명 중 한 명은 고혈압을 앓고 있을 정도로 흔한 질환이기도 하다. 하지만 고혈압성 질환은 10대 사망 원인에 들 정도로 위험하다.

혈압은 기온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다. 기온이 1도 내려가면 수축기 혈압이 1mmHg 내외로 상승하기 때문에 고혈압 환자라면 환절기 건강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환절기 고혈압이 무서운 이유는 고혈압 자체보다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의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환절기에 발생할 수 있는 고혈압 합병증으로는 뇌출혈, 심근경색 등 심뇌혈관 질환들이 있다.

대표적 심혈관 질환에는 협심증과 심근경색이 있는데,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져 협심증과 심근경색이 발생할 수 있고 협심증은 제때 치료받지 않으면 혈관이 막혀 심장 근육이 괴사하는 심각한 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다.

뇌출혈 역시 조심해야 한다. 낮아진 기온으로 혈관이 수축해 혈압이 상승하면 높아진 혈압을 이기지 못해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환절기 고혈압 환자들은 가슴 통증, 어는한 발음, 마비 등 협심증과 뇌출혈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병원을 찾아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받아야 한다.

환절기 일교차로 인해 발생하는 혈압 상승을 예방하

기 위해서는 생활 관리가 중요하다. 실내의 온도 차가 많이 나지 않도록 조절해야 하며, 직장 생활 시 냉방기 사용이 활발한 낮시간에는 얇은 옷을 여러 겹 입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고혈압 환자는 새벽 운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새벽은 혈압이 가장 높은 시간이자 일교차가 큰 시간으로 혈압이 순간 상승할 수 있어 피해야 한다. 규칙적 운동을 계획한다면 낮 혹은 저녁 시간대에 자신에 맞는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것을 권한다. 대중 목욕탕 이용시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온탕 이용 후 체온이 급변하기 때문에 갑자기 찬바람을 쐬면 혈관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식습관도 중요하다. 염분의 과다 섭취는 혈압을 상승시키기 때문에 소금·간장·고추장 등 장류와 김치·젓갈·조미료 등 염분이 많이 함유된 식품의 섭취를 최소화해야 한다. 술도 피해야 한다. 술은 혈관을 확장하는 효과가 있지만 낮아진 기온으로 인해 혈관이 수축되면 혈압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온 변화는 교감신경계 활성화와 혈관 수축, 혈압 상승을 일으킨다. 환절기에는 생활 관리와 함께 규칙적으로 혈압을 체크하는 등 스스로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올바른 습관을 들이고 꾸준히 지켜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고

철학자와 아내



강성률 광주교대 명예교수·철학박사

러발거나 가족을 돌볼 생각은 도무지 하지 않은 채, 제자들 가르치는 일에만 열중하였다. 비록 누추한 옷차림이었으나 그의 뒤에는 많은 제자들이 따르고 있었으며, 그 가운데는 상류층 출신도 많이 끼여 있었다. 그럼에도 소크라테스는 보수 없이 이들을 가르쳤고, 기껏해야 저녁 한 끼로 만족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아내 크산티페는 남편이 철학자라는 직업을 갖지 못하게 하려고(당시 철학자가 되는 것은 '가난'해짐을 의미했기에) 온갖 방법을 다 썼다. 집에서 지옥을 방불케 할 정도로 남편을 못살게 굴었다. 어떤 사람이 "당신은 아내의 잔소리를 어떻게 견디어 버리니까?"라 묻자, 소크라테스는 "물레방아 돌아가는 소리도 귀에 익으면 괴로울 것이 없지요!"라고 대답했다. 하루는 집에서 제자들과 강론을 하고 있는데, 아내가 잔소리를 했다. 이를 들은 척만 척하자 아내는 큰소리로 욕을 하며 물을 퍼부었다. 그러자 소크라테스는 제자들에게 "천둥이 친 다음에는 소나기가 오는 법이 아니라"라며 껄껄 웃었다. 그녀는 남편을 뒤쫓아가 시장 한 복판에서 옷을 마구 잡아당겨 찢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소크라테스는 전혀 개의치 않았으며, 끈질긴 인내심으로 잘 버텼다. 그런데 아내가 들볶아냄으로써 오히려 얻어지는 것이 있었으니, 소크라테스는 불화가 끊이지 않는 집을 서둘러 나와 아테네 시민과 제자들과 더불어 철학적 담화로 빠져들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니체는 "소크라테스를 소크라테스로 만든 것은 바로 크산티페이다"라 말했다.

어느날 소크라테스 집안 형편을 잘 아는 제자가 물었다. "선생님! 결혼하는 것이 좋습니까?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까?" 이에 대한 대답은 제자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결혼하게. 운순한 아내를 얻으면 행복할 것이고, 사나운 아내를 얻으면 철학자가 될 테니!"였다.

그러나 소크라테스의 아내는 '사나운' 크산티페 한 명으로 그치지 않았다는 설이 있다. 미토르라는 여자가 한 명 더 있었다는 것. 소크라테스가 50세 때 25세의 크산티페와 결혼하였으니, 두 번째 아내인 미토르 는 그보다 훨씬 더 어렸을 것이다. 결국 '젊은 아내' 크산티페와 '어린 아내' 미토르 둘은 힘을 합쳐 남편을 향한 바가지지를 무섭게 늘어댔다는 이야기가 된다. 여기에서 보듯, 아테네에서 중혼(重婚)이 법적으로 허락된 데에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으로 인한 소모전과 끔찍한 대역병(大疫病)으로 인해 아테네 성인 남자의 3분의 1이 사망한 상황과 관련이 있다.

그렇다면 과연 '추남과 약처들의 대결'은 어떻게 마무리되었을까? 사형을 앞둔 소크라테스의 감옥에 아들 셋이 찾아오는데, 장남은 크산티페의 아들로서 이미 청년이었고, 차남과 삼남은 미토르의 자식들로서 아직 어린 상태였다. 이들과 동행했을 것으로 추측되는 두 여인은 감옥이 떠나갈 듯 울어댔고, 소크라테스는 이들을 즉시 내보냈다. 그리고 독배를 마시는 순간 울음을 터뜨리는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내가 여인네들을 돌려보낸 것은 바로 이런 꼴을 보기 싫어서 였네. 사람은 마땅히 조용히 죽어야 한단 말일세."

社說

'빈익빈 부익부' 특별교부세 배분 개선해야

인구와 경제력이 집중돼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이 특별교부세를 가장 많이 받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고 균형 발전을 꾀하기 위한 재원이 되려 부자 지자체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그제 공개한 행정안전부의 '최근 10년간 시도별 특별교부세 교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정부가 17개 시도에 배정한 특별교부세는 모두 14조 3776억 원이었다. 이 가운데 서울 1조 5010억 원, 경기 1조 6837억 원, 인천 5383억 원 등 수도권이 3조 7230억 원을 가져갔다. 가장 부유한 세 개 시도가 특별교부세의 4분의 1 이상을 챙긴 것이다.

다른 광역시의 경우 부산 7571억 원, 대구 5313억 원, 광주 4054억 원, 대전 3258억 원 등의 순이었다. 전남은 1조 1995억 원으로도 단위 가운데 경북(1조

3266억 원) 다음으로 많이 받아 비교적 선전한 편이었다. 지방교부세의 일종인 특별교부세는 지자체 간 세원 규모 차이 등에 따른 재정 격차를 줄이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도의 지역 개발을 중앙 정부가 지원해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재원이다.

한데 서울과 경기의 올해 재정자립도는 각각 76.3%, 61.6%로 전국 1·2위를 달리고 있다. 이는 광주 41.1%, 전남 24.2%는 물론 전국 평균(45.3%)을 크게 웃도는 것이다. 그런데도 수도권 지자체가 특별교부세를 더 많이 받은 것은 인구 및 경제 규모에 따라 배분됐기 때문이다.

이처럼 재정 여건이 좋은데 국가 재정까지 쌓이면서 수도권은 날로 비대해지는 반면에 지방은 인구 유출과 재원 부족으로 쇠락을 거듭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특별교부세 배분 기준을 지역의 재정 여건과 발전 수준을 중심으로 바꿔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것이다.

코로나·독감 동시 유행 우려...진단체계 정비를

이번 가을 코로나19와 계절독감(인플루엔자)이 동시에 유행하는 이른바 '트윈데믹'(twindemic)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없는 첫 가을-겨울을 맞이하면서 그동안 억눌려 있던 다른 바이러스가 활개를 칠 수 있기 때문이다.

질병관리청의 감염병 표본감시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계절독감 의심 증상을 보이는 외래 환자가 1000명당 4.7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5주 사이 3.3명에서 4.7명까지 늘어난 것으로, 지난 5년간을 비교해 봐도 이례적인 증가세다. 2018년 1000명당 4.0명인 계절독감 환자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거리 두기 등의 영향으로 2020년 1.7명, 2021년 1.0명으로 급격히 줄었다. 가을을 급증세로 돌아섰다.

여기에 '아데노'나 '리노' 같은 다른 바이러스성 급성호흡기감염증 환자가 지난해 대비 7배 가량 폭증하고 있어 의료 대응 및 진단 체계의 정비가 시급하다. 트윈데믹을 비롯해 바이러스가 동시다발적으

로 발생하면 증상이 유사해 진단이 어렵고 동시 감염시 고위험군의 중증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계절독감과 코로나19만 하더라도 증상이 비슷해 초기에 진단만으로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증상은 유사한데 검사 방법이 달라 자칫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쳐 중증으로 발전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정확하고 빠른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추세지만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광주·전남 지역도 지난 10일 1977명을 저점으로 다시 하루 평균 3000명대로 올라섰다. 여기에 계절독감까지 유행할 가능성이 커진 만큼 초기에 정확한 진단을 통해 감염병의 종류를 특정하고 치료에 나서려면 지금부터 진단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코로나와 독감을 동시에 검사하는 PCR 검사법이 개발돼 있다 하니 방역 당국은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영국·프랑스·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들은 15세기 중반부터 중상주의, 해상 무역, 식민지 개척 등으로 엄청난 부를 쌓았다. 동시에 중세 유럽 봉건영주가 다스렸던 작은 도시국가들이 점차 하나의 국민국가로 통합되면서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가 구축됐다. 이러한 돈과 권력의 집중은 왕이 거주하는 도시인 수도(首都)와 대표 도시들을 필두로 대규모 개발을 촉진시켰다.

무질서한 도로, 어수선한 슬럼의 파리를 대개조한 것은 1853년 나폴레옹 3세 오스망 남작에게 전권을 쥐 17년간 노후 주택 2만 7000채를 허물고 넓

개발의 정당성

개발의 정당성

다. 토지의 공공 소유, 농업·공업 지역의 적절한 배치, 질 높은 공공서비스 제공 등을 레지위스와 웰윈이라는 두 개의 도시에 적용했다. 하지만 이상(理想)에서 출발한 이 신도시는 후일 인근 대도시에서 그쳐 주택을 제공하는 기능에 그치게 된다.

우리나라의 도시나 농촌에 개발 바람이 분 것은 아쉽게도 일제강점기다. 일본인 관료와 중심이 돼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거주민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한 채 이주 일본인들과 부역자들에게 특혜를 주는 개발이었다. 공공이 소유한 토지·하천 등을 싼값에 업체들에게 넘기고, 이를 개발한 업체는 높은 가격에 분양하면서 돈을 챙겼다. 이러한 방식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공공이 주도하는 개발은 당연히 공동체 모두의 이익에 충실해야 한다. 업체와 협약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대한 사전 검증과 감광대는 더 중요하다. 개발의 정당성을 얻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사전에 개발 이익을 철저히 계산하고 이를 적정하게 조율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원현석 정치부 부국장 chadol@

독자투고·기고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4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 220 0621 / 팩스 062 222 4918 /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程厚植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시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직권)(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80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